

라이나생명 라이나전성기재단에 사회공헌기금 120억원 출연기로

라이나생명보험이 지난 11월 8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회공헌기금 120억원을 라이나전성기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
라이나생명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니어 계층 지원을 위해 매년 당기순이익의 3% 안팎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다.

올해 1월에 75억원을 라이나전성기재단에 출연했으나, 내년에는 올해 당기순이익 성장을 고려해 12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.

실제 출연은 2019년 1월에 이루어진다.

라이나전성기재단은 지난해부터 이 사업비로 '전성기캠퍼스', '라이나50+어워즈', '꿈의 무대' 등 시니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, 소외계층을 돕는 라이나건강한 봉사단의 무료 봉사와 장애인 병동 건립을 위한 기부를 지속하고 있다.

또한, 미세먼지 캠페인 및 심폐소생술 전파 등 공익에도 동참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'전성기캠퍼스'는 민간 재단 최초 50+세대의 교육시설로 다



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포스터

양한 분야에 대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경제, 여가, 건강, 문화, 인문학, 실용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.

1년간 총 658개 강좌를 통해 7천300여 명의 시니어가 수강했다.

특히 전성기캠퍼스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리정돈, 역사해설 등 전문가 양성 강좌가 인기다.



제1회 라이나 50+어워즈 수상자 스탠포드 이진형 교수와 시니어 경제상황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



1

- 1 2018 꿈의 무대 발달 장애인 첼로 앙상블에서 오프닝 공연
- 2 라이나건강한봉사단과 홀로 어르신과의 만남
- 3 전성기캠퍼스 정리 정돈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도와

앞으로 전직 및 제2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세미나와 일자리 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.

'라이나50+어워즈'는 시니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한다.

올해 처음 열린 시상식에서 치매, 파킨슨 등 뇌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증명한 뇌과학자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수가 대상에 선정돼 총 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.

현재 두 번째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추천서 접수를 마치고 심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4월 두 번째 주인공을 발표한다.

'꿈의 무대'는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음악가를 발굴하고 숨겨진 시니어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올해는 꿈의 무대 참가자들로 구성된 음악봉사단을 창단해 무료 공연 등 음악 봉사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.

이밖에 임직원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의 회원인 시니어들이 직접 동참하며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라이나건강한봉사단은 홀로노인 지원, 미혼모 가정 후원, 유방암 예방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.

라이나생명 흥봉성 사장은 "사업 규모의 성장에 따라 사회공헌출연금을 증액하기로 했다"며 "기부뿐만 아니라도 사회공헌방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"고 밝혔다. ●



2



3